



Forum

가톨릭 신자의 증가와 그 요인

오 경 환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신자수는 2005년 11월 기준으로 219만 명이 증가하여 74.4% 증가한 반면 개신교 신자수는 1.6% 감소하였다.

들어가는 말

2006년 5월 26일 자 신문에 2005년 인구주택조사결과와 함께 한국 종교인구 변동에 대한 기사가 동아, 중앙, 조선일보에 짙막하게 나왔다. 지난 10년 동안에 천주교 신자가 많이(74%) 증가했으며 개신교 신자수는 14만 4천 명(1.6%) 감소했다는 내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다. 기사 내용을 보며 조사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동안 신자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다고 생각해왔고, 개신교에서는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여 신자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글을 1970년대부터 읽어왔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으니 말이다.

개종이 무엇이나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논의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은 개종이라고 보려고 한다. 개종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에 대한 교리 지식보다는 그 종교에 대한 호감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 관찰하면서 각 종교에 대해 호감이나 반감을 갖게 되고, 아무리 신자들이 열심히 선교해도 호감을 갖는 사람만이 입교하게 된다. 반감을 갖는 사람은 신자들의 열성적인 선교를 단호히 뿌리치고 입교를 거부

할 것이다. 이처럼 선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호감을 싹트게 하고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하는 행위는 교회를 크게 해치고 반선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밝힌 종교인구 변동내역을 보면서, 천주교 회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겠다. 그래서 오늘 논단의 초점은 '한국에서 천주교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요인은 무엇인가'에 모아질 것이다. 그러나 호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천주교 신자의 증가 수치와 그것에 대한 교회 측의 반응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천주교 신자 수치의 문제

2006년도 5월 25일 한국통계청에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1995년도 295만 명이었던 천주교 신자수가 2005년 11월 기준 514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19만 명이 증가(74.4%)하였다. 반면 개신교 신자수는 1995년도 876만 명이었는데 2005년 11월 기준 861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14만 명이 감소(1.6%)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본인이나 가구주가 종교 여부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1995년도 인구조사 표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고르도록 하였다가 2005년도에는 기독교(개신교)와 기독교(천주교)를 고르도록 만들어졌지만, 모든 국민이 잘 기입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천주교에서는 교세통계를 다루는 몇 사람이 그것을 주제로 토의하였고, 2006년 6월 12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한국사목연구소 소장 배영호 신부의 명의로 설명서가 발표되었다. 이 설명서와 많은 신부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천주교 신자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통계청의 수치는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이다.

설명서 <“2005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발표하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인구’ 부문은 한국 종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5년 11월 기준 총인구(내국인) 47,041,434명 가운데 천주교 인구는 5,146,147명으로 10.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1995년 조사의 천주교 인구 2,950,730명(총인구의 6.6%)에 비하여 7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표한 <2005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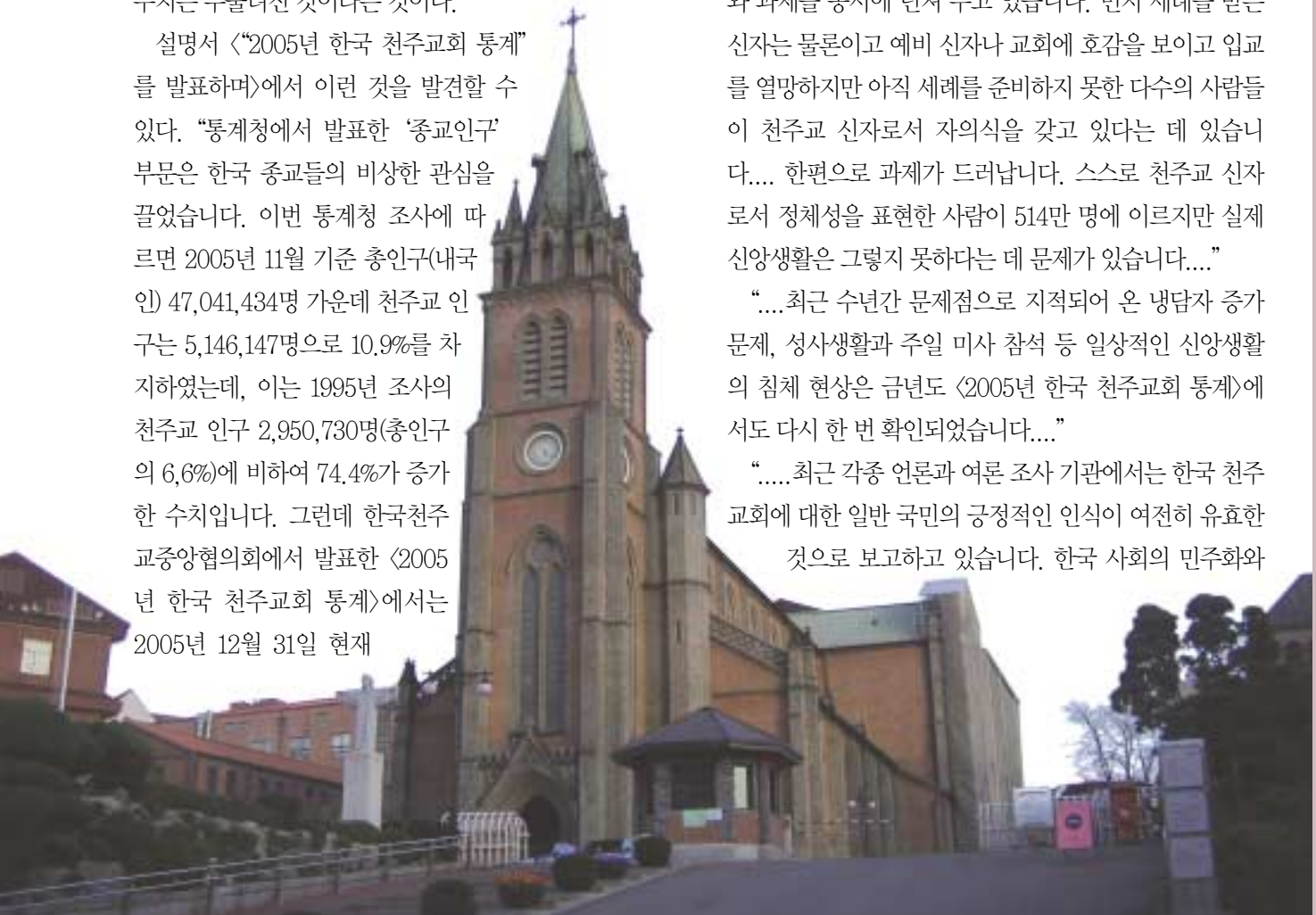
천주교 신자수가 4,667,283명(총인구 대비 9.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계청 발표보다 약 48만 명 적은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 통계는 각 성당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세례를 받고 교적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신자로 집계합니다. 그러므로 성당에 나가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신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조사는 응답자의 자기 확인 방식에 따라 응답을 집계한 것입니다.....세례를 준비 중인 예비 신자, 아직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에 입교를 결심한 사람 등이 스스로 종교를 ‘천주교’ 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는 한국 천주교회에 희망의 징표와 과제를 동시에 던져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신자는 물론이고 예비 신자나 교회에 호감을 보이고 입교를 열망하지만 아직 세례를 준비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로서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으로 과제가 드러납니다. 스스로 천주교 신자로서 정체성을 표현한 사람이 514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냉담자 증가 문제, 성사생활과 주일 미사 참석 등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침체 현상은 금년도 <2005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과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Forum

인권 증진에서 교회의 역할,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헌신,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적 자세, 천주교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등에서 한국 교회는 신뢰할 만한 종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양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더욱 주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교회의 선교와 사목은 복음적 이상과 본질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현대인들의 취향과 사고방식에 맞추어 복음을 축소하거나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교회를 확장해 가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의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소리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사회 안에서 천주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분들의 소박하고 힘있는 삶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맞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나눔과 섬김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6)”

통계청 발표는 천주교 신자수 증가가 74.4%라고 했지만, 천주교회에서는 1995년 말 3,451,266명이었던 신자수가 2005년 말 현재 4,667,283명이었다고 파악했다. 그 차이가 1,216,017명이며 세례 받은 신자는 35.2%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배영호 신부의 생각은 한국 천주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어느 정도 알고 성찰하는 신부와 수녀,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두 공유하는 생각이다. 천주교회 안에

는 통계청의 보고를 읽고 나서도 조금도 놀라고 흥분하는 기색이 없다. 알고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재에 대한 걱정도 많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배 신부는 천주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낸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서 교회의 역할,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헌신,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자세, 천주교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성직자 수도자와 평신도의 헌신적인 사랑 실천이라고 했다. 이처럼 천주교에서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상적이고 헌신적이고 올바른 실천이다. 가정 방문 선교나 거리 선교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일상적이고 장기적이며 올바른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며, 호감을 길러낸다고 생각한다.

천주교회에 대한 호감의 요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것은 기존 신자의 자부심을 키워주며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겠다는 결심을 강화한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든지 누군가가 권할 때에 비교적 수월하게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 Rodney Stark는 동료 John Lofland, Roger Finke 등과 함께 ‘이화여대 교수였던 김영은 박사가 1960년대 초부터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통일교를 선교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개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개종의 핵심에는 애정이 있으며, 따라서 개종은 애정이 감도는 인간관계로써 형성된 사회적 연락망을 따라 진행된다는 결론을 처음 발표하였다. 누구를 개종시키려면 그 사람과 애정이 감도는 인간 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최근의 책(Acts of Faith, 2000년, 118쪽)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25개의 실증적 연구들이 그들의 최초 이론을 지지했다고 한다.

김영은 박사는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강연도 하고 신문과 라디오 광고도 하였으며 대중 집회를 위해 큰 방을 전세 내기도 했지만, 그러한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 개종자는 김 박사와 친분이 있던 친구들과 그들의 친척이었다. 추후의 개종자는 김 박사가 만든 소집단의 회원들의 친구들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Stark와 동료들은 기존 회원들과 깊은 애정의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만 개종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것은 범 죄행위의 설명에도 이용되는 인간행동의 통제이론(Control theory)의 응용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많은 이들이 통일교 회원들과 시간을 갖고 교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통일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종자는 주변에 개종을 강하게 반대하는 친지가 없으면서 통일교 회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 나온 것이다.

Stark는 신흥종교 집단으로의 개종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에로의 개종은 약간 다르다고 보았다.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도 못하던 신흥종교 집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친지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새 종교집단 회원과의 애정 깊은 인간관계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천주교회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로의 개종에도 친지들의 개종반대 부재와 기존 신자와의 애정 깊은 인간관계 형성은 지금도 중요하다. 그러나 반대 부재와 애정적 인간관계의 비중은 약간 작아지고 호감의 비중

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앙일보 2006년 5월 26일 자 기사를 보면, '천주교 신자의 증가 이유'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김종서 교수가 다음의 5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교황청과 각 교구의 지휘를 받는 일사불란한 천주교회의 조직력과 결속력 ②청렴성 ③과거 군사정권 시기에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천주교회가 조직적으로 저항해 정의 종교로 비친 것 ④장례를 조직적으로 돕는 등 관혼상제 의례와 관련하여 유연하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대한 유연한 입장 ⑤다른 종교에 대해 열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호감을 샀다는 것이다.

5가지 이유는 첫번째를 제외하고 배영호 신부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나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① 천주교회의 결속력

한국 천주교회는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등 15개 지역교구로 나뉜다. 2005년 말 현재 신부 3,837명(외국인 16명 포함), 수녀 9,575명(외국인 175명 포함),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은 1,447개이다. 각 교구에는 교구장 주교가 있고, 주교들은 한국 주교회의를 구성하고 '한국중앙협의회'라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주교들은 춘계와 추계 정기총회를 열어 많은 것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한다. 주교회의 산하에는 공동관심사를 다루는 25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주교회의와 각종 위원회들은 한국





Forum

천주교회의 단결력과 결집을 보여준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천주교회는 교구별로 움직인다. 교구가 가장 중요한 조직단위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는 대략 5,000개의 교구가 있고, 교구장은 교황이 임명한다. 천주교 교회론에 의하면,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주교는 다른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베드로가 사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도들의 지도자로 간주하듯이 교황도 주교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교들의 지도자로 간주한다. 신부들은 주교의 협력자로 간주하고 거의 모든 신부는 어떤 교구에 소속된다. 수도회 소속 신부들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부들은 인사이동 규정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보직을 맡게 되며 농촌과 도시성당의 보직도 순환되고 그들의 인사이동은 주로 교구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보통으로 거주지가 기준이 되지만, 신부를 지망하는 신학생의 소속은 입학 때부터 정해진다. 인사이동 규정을 포함해서 교구의 모든 규정은 신부들과 필요한 경우에는 평신도의 의견을 들어 공동으로 결정된다.

각 교구에는 교구청이 있고 각종 활동의 전담신부들과 직원들이 임명되어 각 성당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 예를 들면, 인천, 부천, 김포와 시흥시를 포함하는 인천교구는 그 안에 102개의 성당이 있고, 교구청에 있는 9개 부서는 각 성당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각 성당에서도 항상 교육을 하지만 교구청 사무국들은 전 교구신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구 공납금 제도에서 천주교의 결속력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천교구 내 102개 성당들은 수입의 측면에서 31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수입금의 5~62%까지 교구 공납금

을 납부한다. 교구 수입의 반은 신학대학 유지와 교구청 유지에 쓰이고 나머지 정도는 새로운 개발지역에 새로운 성당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된다.

천주교의 결집과 단결은 신자 관리에서도 나타난다. 신자들은 이사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에 다니도록 종용받는다. 주일학교에서나 입교준비 과정에서 이사하면 교적을 옮기라는 교육을 받는다. 교적은 주민등록부와 비슷한 서류이다. 신부도 이동하고 신자들도 이사하여 살다가 다른 성당에서 또다시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모든 성당이 자기네 성당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어느 성당에 정이 들었다 해도, 이사해서 멀어지면 다니기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비와 눈이 오면 다니기를 중단할 수 있으니, 가장 가까운 성당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며 다니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주말여행 중에는 가까운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② 천주교회의 청렴성

천주교회에서는 신부들의 청렴한 생활과 청빈한 생활을 매우 중요시한다. 교구장은 신부들의 청렴한 생활과 청빈 생활에 대해 항시 관찰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심각하면 조치를 취한다. 청렴성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신자들의 신뢰심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고 언론매체에 오르내려 천주교회의 명예와 이미지에도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독신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 것이지만, 수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부들도 개인 재산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수녀회와 수도회는 회원인 수녀와 수사들의 생활비와 주거지, 노후생활과 질병치료를 책임지고 또한 교구가 신부들의

생활비와 주거지, 노후생활, 질병치료를 모두 책임진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신부와 수녀들은 주택이나 재산을 모으는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신부와 수녀들의 훈련과 양성과정과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야 한다는 점이 끝없이 강조된다. 신부들은 7개 신학대학에서, 수녀들은 102개의 수녀회에서 교육을 받고 양성된다. 신학생들은 신학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와 더불어 영성훈련에 들어간다. 영성훈련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신 때문에, 사회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들어온 학생도 기숙사에서 7년간 영성훈련을 받는다. 가톨릭 신학대학에는 거의 모든 교수 신부들과 영성지도 신부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 상주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육하고 지도한다.

종교사회학에서, 특히 종교체험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체험의 근저에는 성스러움과 속스러움의 체험이 동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느님과 궁극적인 존재 자체는 물론 그와 가깝다고 간주하는 장소, 시간, 물건이나 사람들은 신앙인들에게 성스러움의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회에서는 신부와 수녀 양성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본받아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부와 수녀를 만나면서 자기들과는 어딘지 좀 다르고 미미하게나마 성스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천주교회는 각 성당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모든 성당의 주일 미사 중에 모아지는 헌금에 대해 신부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여러 명의 신자들이 공동으로 세어 장부에 기록하여 서명하는 방법으로 미사에서 들어온 헌금액을 공개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달 교구청에 보고되고 주보에 공지된다. 지출은 각 성당의 관련부서 책임자 평신도들이 서명한 후 마지막으로 주임신부가 서명해야 이루어진다.

성당에서는 신자들의 헌금액은 항상 비밀로 남겨두고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헌금액을 공개하여 경쟁을 시키거나 누구를 압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신부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느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신부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는 복무연도에 준해서 일정하게 정해지고 성당규모에 관계없이 어디에 임명되어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된다. 연도별 생활비와 활동비 차이는 미미하다. 신부가 사회복지기관이나 학교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 봉급이 많아질 수 있으나 그 돈은 모두 교구재정으로 들어가고 신부는 교구규정에 따라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신부들은 생활비와 활동비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다.

③ 천주교회의 정의와 인권활동

천주교회의 정의와 인권활동은 예언직 활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톨릭 사회교리에 근거한다. 사회교리는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의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가 발표되면서 발전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경과 전래한 신학과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역사적 현실에 대한 관찰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형성되고, 신자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삼는다. 천주교회는 선교와 복음화 활동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으로 보는 동시에 사회교리에 따른 정의활동을 선교와 복음화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의활동은 교회가 조금도 등한히 할 수 없는 활동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회의 정의활동은 196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도입된 가톨릭노동청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증가하는 가톨릭 신자노동 청년들을 지도하고 교육해서 신앙



Forum

〈표〉 1970년~2005년도 한국 천주교 신자 통계

연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연도별 신자증가율	5년 간격	10년 간격
	인구수	인구대비	신자수			
1970	32,240,827	2.4%	788,082			
1971	32,882,704	2.4%	790,367	0.3%		
1972	33,505,406	2.4%	803,620	1.7%		
1973	34,103,149	2.8%	953,799	18.7%		
1974	34,692,266	2.9%	1,012,209	6.1%		
1975	35,280,725	3.0%	1,052,691	4.0%	33.6%	
1976	35,848,523	3.1%	1,093,829	3.9%		
1977	36,411,795	3.1%	1,144,224	4.6%		
1978	36,969,185	3.2%	1,189,863	4.0%		
1979	37,534,236	3.3%	1,246,268	4.7%		
1980	38,123,775	3.5%	1,321,293	6.0%	25.5%	67.7%
1981	38,723,248	3.7%	1,439,778	9.0%		
1982	39,326,352	4.0%	1,578,017	9.6%		
1983	39,910,403	4.3%	1,711,367	8.5%		
1984	40,405,956	4.6%	1,848,476	8.0%		
1985	40,805,744	4.9%	1,995,905	8.0%	51.1%	
1986	41,213,674	5.2%	2,148,607	7.7%		
1987	41,621,690	5.6%	2,312,328	7.6%		
1988	42,031,247	5.9%	2,468,082	6.7%		
1989	42,449,038	6.2%	2,613,267	5.9%		
1990	42,869,283	6.4%	2,750,607	5.3%	37.8%	108.2%
1991	43,295,704	6.8%	2,923,386	6.3%		
1992	43,747,962	7.0%	3,066,733	4.9%		
1993	44,194,628	7.3%	3,209,494	4.7%		
1994	44,641,540	7.5%	3,338,918	4.0%		
1995	45,092,991	7.7%	3,451,266	3.4%	25.5%	
1996	45,524,681	7.8%	3,562,766	3.2%		
1997	45,953,580	8.0%	3,676,211	3.2%		
1998	46,286,503	8.2%	3,804,094	3.5%		
1999	46,616,677	8.5%	3,946,844	3.8%		
2000	47,008,111	8.7%	4,071,560	3.2%	18.0%	48.0%
2001	47,342,828	8.9%	4,228,488	3.9%		
2002	48,517,871	9.0%	4,347,605	2.8%		
2003	48,386,823	9.2%	4,430,791	1.9%		
2004	49,052,988	9.3%	4,537,844	2.4%		
2005	49,267,751	9.5%	4,667,283	2.9%	14.6%	

생활을 잘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1968년 강화도 한 직물공장에서 가톨릭노동청년들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경찰이 개입하여 불순운동으로 매도하면서 다른 주교와 신부들이 관심을 보이고 청년회를 지원하자 가톨릭교회와 국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천주교회의 정의활동은 더욱 강력해졌고 1987년 개헌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천주교회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천주교회의 정의활동이 외부 인사들에게는 일시불란해 보였던 것 같지만, 내부 갈등도 있었고 일부의 반대가 없던 것은 아니다. 반대론자들은 정의활동이 선교에 해롭고 입교자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정의활동에 참여한 이들도 입교자를 증가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볼 때 입교자 증가는 정의활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다.

천주교회의 정의활동은 가톨릭 신자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천주교회 내에서 이미 1990년대 초에 인식되었으며, 이는 왼쪽의 〈표〉를 보면 드러난다. 연도별 증가율이 1976년의 3.9%에서 약간씩 증가하고 1981년에는 최고수준인 9.0%까지 올라가고 1980년대의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옛날 수준으로 내려갔다. 1996부터는 그 효과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교구별 비교자료들은 정의활동이 신자 증가를 가져왔다는 결론을 좀 더 보강해 주고 있다. 전국 15개 교구의 정의활동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신부들의 정의활동이 격려된 교구도 있던 반면, 교구장에 의해 약간 억제된 교구도 있었다.

여러 교구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정의활동이 격려된 교구에서는 억제된 교구에서보다 신자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때의 정의활동이 신자 증가율에 지금도 효과를 내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④ 조상제사와 장례예식에 대한 유연한 태도

1715년 전부터 중국에 와 있던 천주교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조상제사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유학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선교사들은 조상제사의 근본 목적은 신령 흥함에 있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자손의 추모와 섬김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민을 주로 상대하던 선교사들은 조상제사에서 죽은 이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은 악마를 섬기는 미신행위라고 보았다.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후자의 의견이 더 맞는 것으로 인정하여 1742년에 유교적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하였고, 중국 천주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중국 정부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였다.

조선에서는 1784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첫 신자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세례 받은 신자들이 증가했지만, 조상제사 금지령은 1790년에 가서야 확실히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윤지충이 1791년 5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장례는 정성껏 치렀으나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것이 천주교인의 첫 제사거부 행위였는데, 그 행위가 관가에 알려지면서 윤지충은 처형되고 100년간의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어 1886년까지 1만여 명의 순교자가 배출되었다.

1925년 <한국천주교 요리(要理)>란 책에서도 제사를 십계명의 제1계명을 거스르는 이단행위로 규정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제사를 도와주는 것, 제례용품을 빌려주거나 만들어 주는 것, 향교나 사당을 짓는 것, 시신에 절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유럽에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여 여러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와

통찰이 변화하였다. 교회 안에서는 식민주의적 선교방법에 관한 반성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의 사조에 따라 각 문화 유산에서 미신적 요소가 감소했다고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과 재평가의 덕택으로 1935년 교황 비오 11세는 공자존경 의식을 허용했고, 1936년 일본의 신사참배도 허용했으며, 1939년에는 유교식 조상제사에 대해 시체나 죽은 이의 사진, 그리고 단순한 이름이 기록된 패 앞에서 존경의 의식을 허용하는 등 상당히 관용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래도 조상제사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1958년 한국천주교주교단은 제례와 상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뿐 아니라, 허용하거나 금지되는 구체적 의식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허용되는 의식은 시체나 사진, 죽은 이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 절하고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는 행위이고, 금지되는 행위는 제사에는 합문(신명께 고하는 축문과 제물을 물리기 전에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는 행위), 장례에는 고복(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행위), 사자밥(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고 차려놓는 밥이나 신발), 반함(죽은 이의 입에 쌀이나 구슬이나 동전을 넣는 행위)이다. 조상제사 의식을 하면서 미신행위를 피하게 하는 이 지침은 지금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기일이나 명절에 음식에 상에 차려놓고 절하는 차례를 지내지 않고 성당에서 바쳐지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차례를 대신하는 천주교인 가정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장례문화가 있다. 이는 유교문화에 젖어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천주교 입교 결심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각 성당에는 초상을 당한 유가족을 정성껏 돕는 연령회가 조직되어 있다. 초상을 당한 상주가 연령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염습(殮襲), 입관, 출관, 장례미사, 장지수행 등을 돕는다. 연령회는 유족에게서 금전을 받는 일을 절대로 삼가고 있고, 필요한 경비는 성당에



Forum

서 지급받는다. 모든 성당에는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아>가 조직되어 있어 초상이 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통보되고, 초상통보를 받은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빈소를 찾아와서 연도를 바친다. 연도란 구약성경의 시편 몇 편을 구성진 가락에 맞추어 바치는 30분 정도의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이다.

⑤ 타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

개신교와 정교회는 물론이고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기타 종교에 대한 천주교회의 입장과 태도는 1962~19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리되고 획기적으로 변화였다. 이 회의에는 한국의 주교들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공의회는 교황이 소집하며, 신앙, 윤리, 규범 등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세계 주교 회의인데, 천주교회의 역사상 21번의 공의회가 열렸다. 공의회는 교황이 의장이 되며, 그는 주교들과 마찬가지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모든 문서들은 주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통해 채택되고 교황의 인준과 공표를 통해 효력을 가지며, 신학자들은 주교를 보조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토의된 여러 가지 문제가 16개의 문서로 발표되었다. 그 중 <교회헌장>, <일치운동교령>,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등의 문서는 타종교에 대한 천주교회의 입장과 태도를 담고 있다.

천주교회에서는 개신교와 정교회를 함께 부를 때에는 “갈라진 교회”라고 한다. 갈라진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다음의 것인데, 그것은 갈라진 교회들이 구원을 위해서 중대한 의미가 있고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갈라진 교회와 단체들이 비록 결함은 있겠

지만 구원의 신비에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교회와 단체들을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거절치 않으신다.”(일치운동교령 3항) 가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갈라진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한 것이다.

같은 교령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교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가톨릭교회의 울타리 밖에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보화인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은총의 생명, 믿음, 사랑 등이다(일치운동교령 3항). 둘째로는 그리스도교적 거룩한 행위가 갈라진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의 설교, 세례와 성찬 등 기타 성사 행위이다.

천주교회가 갈라진 교회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1864년까지만 해도 교황청은 동방의 정교회를 그리스도교의 단일성을 파괴한 열교로 묘사했고, 영국의 성공회를 비롯하여 개신교회들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895년 레오 13세 교황의 문서에서부터 열교와 이단이란 말 대신에 “갈라진 교회”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갈라진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한 일치기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로 갈라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천주교회는 1930~40년대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타종교에 대해 지극히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제국주의적인 자세로 타종교인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고 비그리스교인들을 처음부터 과실을 지닌 사람들로 간주하는 자세가 지배적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타난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천주교회의 생각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비유되는 이러한 변화에는 칼 라너의 “의명의 그리스도인” 이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천주교회는 처음으로 비그리스도교 전통들의 의미와 가치를 깊게 성찰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한 전통이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전통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적 구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입장을 신중하게 표현한다.

〈교회헌장〉의 16항은 유대교인, 이슬람교인, 힌두교와 불교와 기타 종교인, 심지어 무신론자를 생각하면서 천주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표현한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계약과 언약을 받는 백성이 그렇다. 그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 육신으로 태어나셨으니 그 백성은 선택에 조상들 덕분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선물과 선택은 변경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유대교인). 그러나 구원계획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며 그중에는 회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존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신 유일신을 우리와 함께 흠송하고 있다(이슬람교인). 또 모르는 신을 영상 속에서 찾는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니,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니 구세주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힌두교인, 불교인, 기타 종교인). 또한 자기의 탓 없이 하느님을 아직 명백히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섭리가 구원에 필요

한 도움을 거절치 않으신다(무신론자). 사실 그들한테서 발견되는 좋은 것,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비추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교회는 생각하고 있다.”(교회헌장 16항)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은 힌두교, 불교와 기타 종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과 권고를 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 양식뿐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저 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더불어 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정신적 내지 윤리적 선과 사회적 내지 문화적 가치를 긍정하고 지키며 발전시키는 모든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바이다.”(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2항)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에도 옳고 성스러운 것이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행동 양식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드물지 않다”는 언급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는 말

이상 5가지 실천은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지려는 것에서 출현한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인천에서 주임신부 생활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들은 개신교인, 불교인, 무종교인과 천주교인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에 이상의 5가지 실천은 분명히 천주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길러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이러한 실천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점차로 알려졌고, 그들이 호감을 갖게 된 결과로 지난 10년 간 가톨릭 신자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